

Like the air we breathe(숨 쉬고 있는 공기처럼)

라이언 갠더는 이 작품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실제 눈에 보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신도(神道)에서 신은 폭포, 나무, 바위, 동물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현세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형태는 그 자체가 ‘소중’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향한 사람들이 지닌 신앙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나무 기둥 아래에 묻혀진 것은 다자이후 덴만구와 가까운 유치원의 원아 75 명이 기증한 ‘소중’한 물건들을 모은 타임캡슐입니다. 물건들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져 땅속에 묻혔습니다. 이 나무 기둥에는 각자의 물건이 픽토그램으로 그려져 있으며, 물건들이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